

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성신이 역할을 다하게 한다

“일단 [교사들이] 영적으로 배우는 일에서 성신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, [그들은 이러한] 성신의 작용들이 성취되도록 영을 초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게 된다.”*

교사가 할 수 있는 일	교사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적인 합당성을 위해 노력한다. • “신앙의 기도”를 드린다.(교리와 성약 42:14) • 매 수업에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임하고자 힘쓴다. •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중점을 두고자 힘쓴다. • 다른 일에 속상해 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평안을 유지하려 노력한다. • 겸손한 탐구의 영을 지닌다. • 영을 초대하여 배우는 경험을 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가르친다. • 예를 들 때나 토론할 때 구주께 초점을 두고 그분에 대해 간증한다. •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단순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. • 영감이 주어지는 고요한 순간에 시간을 갖고 깊이 숙고한다. • 적절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교리와 원리에 대해 간증한다. • 서로, 그리고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한다.

*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: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 및 지도자 지침서 (2012) 11쪽.

